

目 次

東洋古典國譯叢書 刊行辭

이 책에 대하여

四書集註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凡 例

大學章句

大學章句序	15	傳文4章(釋本末)	42
英祖大王 御製	20	傳文5章(釋格物致知)	43
讀大學法	23	傳文6章(釋誠意)	44
大學章句	31	傳文7章(釋正心修身)	48
經文1章	31	傳文8章(釋修身齊家)	51
傳文1章(釋明明德)	35	傳文9章(釋齊家治國)	52
傳文2章(釋新民)	37	傳文10章(釋治國平天下)	56
傳文3章(釋止於至善)	38			

中庸章句

中庸章句序	73	第10章	92	第22章	131
讀中庸法	78	第11章	94	第23章	132
中庸章句	81	第12章	96	第24章	133
第1章	81	第13章	99	第25章	134
第2章	86	第14章	102	第26章	136
第3章	87	第15章	104	第27章	140
第4章	88	第16章	105	第28章	143
第5章	89	第17章	108	第29章	145
第6章	89	第18章	110	第30章	148
第7章	90	第19章	112	第31章	150
第8章	91	第20章	116	第32章	151
第9章	91	第21章	131	第33章	153

附錄：朱子年譜

大學章句

子程子¹⁾曰 大學은 孔氏之遺書니 而初學入德之門也라 於今에 可見古人爲學次第者는 獨賴此篇之存이요 而論孟次之하니 學者必由是而學焉이면 則庶乎其不差矣리라

子程子가 말씀하였다.

“《大學》은 孔氏의 남긴 글이니, 처음 배우는 자가 德에 들어가는 문이다. 지금에 옛 사람들이 學問을 한 순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유독 이 篇이 남아 있음을 의뢰하고 《論語》와 《孟子》가 그 다음이 되니, 배우는 자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배우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다.”

譯註 1. 子程子 : 程子를 더욱 높여 칭한 것으로, 明道와 伊川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程子라 하였으며, 여기서는 특별히 높여 이렇게 칭하였는 바, 이 내용은 《二程粹言》과 《程氏遺書》를 혼합한 것이다.

1.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新)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大學》의 道(방법)는 明德을 밝힘에 있으며 鮑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至善에 그침에 있다.

程子曰 親은 當作新이라

○ 大學者는 大人之學也라 明은 明之也라 明德者는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하여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라 但爲氣稟所拘와 人欲所蔽면 則有時而昏이라 然이나 其本體之明은 則有未嘗息者라 故로 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하여 以復其初也라 新者는 革其舊之謂也니 言 既自明其明德이면 又當推以及人하여 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汚也라 止者는 必至於是而不遷之意요 至善은 則事理當然之極也라 言 明明德, 新民을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이니 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이요 而無一毫人欲之私也

遺:남길 유 賴:의뢰할 퇴 庶:거의 서 差:어그러질 차 革:고칠 혁 染:물들 염 毫:더럭 호

라 此三者는 大學之綱領也라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親은 마땅히 新이 되어야 한다.”

○ 大學은 大人(큰 사람)의 학문이다. 明은 밝힘이다.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 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衆理를 갖추고 萬事에 응하는 것이다. 다만 氣稟에 구애된 바와 人慾에 가리운 바가 되면 어두울 때가 있으나 그 本體의 밝음은 일찍이 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땅히 그 發하는 바를 인하여 마침내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新은 옛 것을 고침을 이르니, 이미 스스로 그 明德을 밝혔으면 또 마땅히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쳐서 그로 하여금 또한 옛날에 물들었던 더러운 것을 제거함이 있게 함을 말한다. 止는 반드시 이에 이르러 움기지 않는 뜻이요, 至善은 事理의 當然한 極(극치, 표준)이다. 이는 明明德과 新民을 모두 마땅히 至善의 경지에 그쳐서 움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반드시 天理의 極을 다하고 一毫라도 人慾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大學》의 綱領이다.

知止而后에 有定이니 定而后에 能靜하고 靜而后에 能安하고 安而后에 能慮하고 慮而后에 能得이니라

그칠 데를 안 뒤에 定함이 있으니, 定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止者는 所當止之地니 卽至善之所在也니 知之면 則志有定向이라 靜은 謂心不妄動이요 安은 謂所處而安이요 慮는 謂處事精詳이요 得은 謂得其所止라

止는 마땅히 그쳐야 할 곳이니, 바로 至善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안다면 뜻이 定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 靜은 마음이 망령되어 동하지 않음을 이르고, 安은 처한 바에 편안함을 이르고, 慮는 일을 처리하기를 정밀하고 상세히 함을 이르고, 得은 그 그칠 바를 얻음을 이른다.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

后:뒤 후 慮:생각할 려 妄:망령될 망